



전례 주기를 따라가는 놀이와 활동 프로그램(10)

김종대 · 가톨릭 가톨릭 한마음 놀이 문화 연구원(부산)

내가 누구게? (모든 성인 대축일)

잘 알려진 성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인들도 많이 있다. 잘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를 떠나 수많은 이름 모를 성인들이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주보성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본받는 신자들이 되도록 하자.

- 대상 : 초등부 고학년 이상

- 진행 내용

- ① 학생들은 자신의 주보성인에 대한 내용을 미리 조사한다.
- ② 그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면 다른 학생들이 이것을 맞힌다(이름이나 사물 게그 형태로 진행).
- ③ 자신의 주보성인을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삶을 묵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 색깔 유언 (위령 성월)

사람은 나고 늙으면 병들고 죽음에 이른다.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도록 하자.

- 대상 : 초등부 고학년 이상

- 준비물 : 무지개 색깔 판과 칸이 만들어진 종이, 필기도구나 크레파스

- 진행 내용

- ① 무지개 색깔과 칸이 그려진 종이를 나누어 갖는다.
- ② ‘만일 지금 내가 죽음에 이른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한다.
- ③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일곱 가지 말씀’이 가진 의미를 들려 주고 함께 묵상한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은 다음과 같다.
 -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 목마르다.
 - 이제 다 이루었다.
 -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 엘리이, 엘리이,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까?)
- ④ 생각한 자신의 ‘일곱 가지 유언’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나눈다.
- ⑤ 작성한 것을 모두 모으고, 죽은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린다.

하늘나라 우체국 (위령 성월)

먼저 가신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 보자.

- 대상 : 초등부 저학년 이상

- 준비물 : 잎이 넓은 낙엽, 매직(네임펜)이나 물감, 상자로 만든 우체통

- 진행 내용

- ① 교사가 미리 낙엽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낙엽을 준비하도록 한다.



그림 · 백지혜 실비아

- ② 교사는 우체통을 준비하고 ‘하늘나라 우체통’이라고 적어 놓는다.
- ③ 학생들이 준비한 낙엽에 가까운 사람 중 세상을 떠난 이에게 편지를 쓴다. 완성된 낙엽 편지를 “연옥 영혼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라고 말하면서 우체통에 넣는다.
- ④ 교사는 이 편지함을 미사 시간에 봉헌할 수 있도록 신부님과 협의한다.
- ⑤ 미사가 끝나면 우체통 안에 있는 낙엽을 태우며 하늘로 오르는 연기를 보고 하늘나라에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 응용

우리 본당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 카페를 만들어 ‘하늘나라 우체통’을 만들어 두면 어떨까? 먼저 가신 많은 분들을 위해 추모의 글과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연옥 영혼 구출 작전 (위령 성월)

우리의 기도가 연옥 영혼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자. 그래서 위령 성월뿐 아니라 자주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대상 : 초등부 저학년 이상
- 준비물 : 옷놀이 판이나 말판(사각이든 둥글거나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주사위, 연옥영혼 말
- 진행 내용
- ① 모둠을 나누고 모둠 별로 말을 정해 준다. 이 말이 천국까지 가도록 한다. (말을 모둠의 인원수만큼 주고 각 말을 자신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 ②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이동하여 통과한다. 이때 기도(간단한 화살기도)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 ③ 말판에는 함정이나 극기해야 할 사항, 드려야 할 기도(주요기도문), 실천해야 할 행동이나 메시지를 적어 놓는다.
- ④ 모둠별로 천국을 통과한 수만큼을 점수화하고 승패를 나눈다. 이때 천국에 이르지 못한 영혼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말자.

나도 따라서! (평신도 주일)

평신도는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 한국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 속에서 평신도의 삶을 조명해 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대상 : 초등부 고학년 이상
- 준비물 : 평신도 성인에 관한 사진이나 자료, 한국 순교 성인들에 대한 자료
- 진행 내용
- ① 평신도 성인 중 한 사람을 정한다.
(예) 성 정하상 바오로, 성 유대철 베드로 등.
- ② 그분과 관계된 책이나 그림, 만화 등 다양한 자료를 모은다. 그리고 그 속에 나온 행동이나 말들 중에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할 모습들을 찾아 본다.
- ③ 나는 평신도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자.

(예) 기도, 공부, 친구에게 예수님 말씀 들려 주기 등.

왕관과 십자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뒤에 영광스레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지금은 어려워도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과정 속에 있는 고통은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상 : 초등부 고학년 이상

-준비물 : 십자가(나무나 종이, 풍선으로 만든다), 장식할 꽃(풍선으로 만들 수 있다), 왕관(종이나 풍선으로 만든다)

- 진행 내용

- ①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다. 그리고 왕관은 영광의 상징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고통의 길도 마다 않는다면 역시 그분과 같이 영광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② 개인별로 혹은 학년별로 십자가를 크게 만든다. 그리고 예쁘게 꾸민 후 왕관을 씌운다.
- ③ 꽃으로 장식된 십자가를 만들면서 어려움 뒤에 다가올 기쁨과 환희에 대해 묵상해 본다.